

# 油價 하락이 인도네시아 經濟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출입은행—

## I. 머리말

세계石油가격은 1985년 이래 계속 약세를 보여왔는데, 특히 1985년 12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가격방어를 위한 감산정책 포기로 OPEC의 公示價格制度가 1986년 1월 마침내 붕괴됨에 따라 1986년 7월에는 배럴당 10달러선까지 급락하는 등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970년대 이래 油價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했던 인도네시아도 최근에는 油價하락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 外債부담증가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5년 11월말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石油수출가격은 OPEC 公示價格인 배럴당 28달러선이 유지되었고, 原油생산량도 OPEE 쿼터인 1,189백만B/D 수준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6년 1월부터 原油의 현물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인도네시아産 原油의 수입자들은 수출가격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수입국을 일부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정부도 가격정책을 변경하여 수출가격을 現物시장가격 변화에 맞추어 변동시키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收入감소를 보충하고자 증산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증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石油수출액은 石油수출가격이 1986년 3월에 배럴당 14.45달러, 4월

에 10.66달러, 그리고 8월에는 9.83달러까지 하락함에 따라 1986년 들어 전년 수출액의 50~60% 수준으로 감소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는 石油 이외에도 풍부한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2次産業이 발달되지 못하여 여전히 石油 등 1차산업에 주로 의존하는 불균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石油 및 天然가스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60~70%에 달하고 있으며, 石油부문으로부터의 수입이 정부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石油가격하락은 同國의 경제안정을 위협하고, 장기적 발전계획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최근 油價하락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및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처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정책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油價하락이 財政 및 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 1. 1986 / 1987년도 재정계획

인도네시아 石油수출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은 1986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6년 3월로 끝난 同國의 1985 / 1986 회계연도중 재정운용은 세입이 전년

도보다 증가하고 지출부문도 당초 예산대로 집행되는 등 油價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정부는 1986년 1월 石油수출가격의 하락세를 고려하여 1986/1987년도 재정계획을 전회계연도 수준보다 7% 정도 축소 편성하였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년도보다 10% 이상 감축된 것으로서 立案당시만 해도 상당히 과감한 결단으로 평가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1986/1987회계연도에 접어들어 油價가 배럴당 10달러선까지 하락하자 정부의 石油부문세입은 상반기중(1986. 4~9월)에 이미 전회계연도보다 43.2%나 감소됨으로써 재정운용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정부의 분석에 의하면, 石油생산의 변동이 없는 경우, 石油수출가격의 배럴당 1달러 하락은 정부세입을 연간 3,250억루피아(1986. 12. 평가절하前 루피아 가치 기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石油수출가격이 당초 예산편성시의 기준인 배럴당 25달러보다 14달러가 하락한 11달러수준이 될 경우 이론상 정부세입은 4조5,500억루피아가 줄어들어 세입예산 17조8천330억루피아의 23.6%가 결손되게 된다. 이같은 대폭적인 세입부족은 필연적으로 정부경상지출의 일부 감축을 수반할 것이며, 개발지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1986/1987년도 상반기(1986. 4~86. 9월)의 재정운용실적을 보면, 국내세입이 전 회계연도 상반기에 비해

〈表 - 1〉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재정구조

(단위 : 10億루피아)

	1983 / 84	1984 / 85	1985 / 86	1986 / 87 (예산)
국 내 歲 入	14,433	15,905	19,252	17,833
石 油 部 分	9,520	10,430	11,144	9,738
非 石 油 部 分	4,913	5,475	8,108	8,095
대 외 借 入	3,882	3,478	3,572	3,598
計	18,315	19,383	22,825	25,607
經 常 支 出	8,412	9,429	11,951	13,126
開 發 支 出	9,899	9,952	10,873	8,296
(Project Aid)	(3,867)	(3,409)	(3,503)	(3,508)
計	18,311	19,381	22,824	21,422

〈資料〉 인도네시아 財務省

〈表 - 2〉 1986 / 87년도 상반기 재정운용 실적  
(1986. 4~86. 9)

(단위 : 10億루피아)

	1986 / 87상반기실적		1985 / 86 상 반 기 실적(B)	A / B(%)
	금액(A)	연간예산 대비(%)		
국 내 歲 入	7,473	42.0	8,396	-11.0
石 油 部 分	2,960	30.4	5,208	-43.2
非 石 油 部 分	4,513	55.7	3,188	41.6
대 외 借 入	1,545	43.6	1,401	10.3
Program aid	397	488.1	32	1,134.2
Project aid	1,148	32.7	1,369	-16.1
計	9,019	42.1	9,797	- 8.0
經 常 支 出	5,745	43.8	5,217	10.1
開 發 支 出	2,124	25.6	3,210	-33.8

〈資料〉 〈表-1〉과 같음.

11%나 감소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약 3억달러의 商業借款을 도입(對外借入項目의 program aid 로 計上)하여 개발투자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이같은 재정자금부족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1986년 9월 12일자로 루피아貨를 美달러에 대해 45%(달러가치기준 31%)나 대폭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루피아貨의 평가절하는 대외채무상환부담 및 수입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을 가져오나, 달러貨로 취득되는 정부의 石油부문 세입의 루피아貨 명목수입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차입없이도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 따라서 평가절하의 주목적은 非石油부문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개선보다는 재정수입확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986/1987년도 하반기의 루피아貨 재정수입은 9월 12일 평가절하에 따라 2조루피아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경상지출 및 개발투자에 소요되는 루피아貨 資金供給에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회계연도보다 총규모가 7% 감축된 1986/1987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지출면에서 경상지출이 전 회계연도보다 9.8% 증가한 반면, 개발지출은 23.7%나 감소 책

정된 바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油價가 배럴당 1달러 하락할 때 재정수입이 3,250억루피아의 감소를 초래한다면 油價가 배럴당 10달러선일 경우 재정부문에서의 개발지출재원은 자체확보가 거의 어렵게 된다. 실제로 1986/1987회계연도 상반기중 인도네시아의 石油수출가격은 평균 11달러선을 나타냄으로써 개발투자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정부의 개발투자자금지원은 해외차입에 의한 외화지원(project aid)과 국내용역 및 자재구입에 소요되는 정부의 루피아貨 지원이 통상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정부의 루피아貨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개발투자사업 전체가 그 추진에 지장을 받게 된다. 1986/1987년도 상반기중 정부의 總개발지출집행액 2조1,240루피아는 해외차입지원 1조1,480억루피아와 루피아貨支援 9,760억루피아가 구성되었는데, 루피아貨 지원액중 3,566억루피아가 상업차관 도입으로 충당됨으로써 정부가 자체세입으로 지원한 개발지출액은 1985/1986회계연도의 7조3,700억루피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6,194억루피아에 불과하였다.

1986/1987회계연도에 들어서서 인도네시아정부는 부족되는 루피아貨 개발투자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차관공

여국들에게 국내소요비용의 지원도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日本의 1985/1987회계연도 對인도네시아 ODA원조액중 26%가 국내소요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同國의 1986/1987회계연도 중의 개발투자규모는 루피아貨의 平價切下로 정부의 改政難이 다소 완화될지라도 세입결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회계연도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 2. 1987/88년도 재정계획

인도네시아정부는 최근의 국제油價 및 국내경기의 침체현상으로 재정수입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基準油價를 배럴당 15달러로 책정하고, 1987/1988회계연도 豫算案을 전반적인 긴축기조하에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總 國內歲入은 17조 2,361억루피아(약 105.9억달러)로서 명목가치기준으로 전회계연도보다 3.3% 감소한 반면, 총 세출은 6.4% 늘어난 22조7,831억 루피아(약 140.0억달러)인데, 실질가격기준으로는 2.5% 감축된 규모이다.

② 금번 예산편성의 基準油價는 전회계연도의 배럴당 25달러보다 10달러가 낮은 배럴당 15달러로 石油부문세입은 전회계연도보다 28.7% 감소 책정되었다.

③ 정부의 대외채무 원리금상환액은 전회계연도 보다 61.1% 증가한 6조8,054억루피아(약 41.8억달러)로서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④ 개발지출은 전체적으로 6.5%가 감소한 7조7,566억루피아(약 47.7억달러)로 책정되었는데, 루피아貨 지출은 국내재원부족으로 前회계연도보다 51.3%가 감소한 반면, 해외차입금에 의한 지출은 54.7%가 증가한 5조4,257억루피아(약 33.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油價가 배럴당 12달러에 머무르는 경우 해외차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개발투자는 물론 對外債務元利金の 정상적 상환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世界石油가격이 1987년에도 1986년과 같이 약세를 지속한다면 인도네시아정부는 기존채무의 원리금상환을 리파이낸싱하고 추가차입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油價가 배럴당 15달러선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외채원리금의 정상적 상환을 위하여는 루피아貨 기준으로 볼때, 외채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表 - 3〉 인도네시아의 石油수출가격 추이

(단위: \$/B)

價格		價格	
1973. 11	6.00	1980. 5	31.50
1974. 1	10.80	1981. 1	35.00
4	11.70	1982. 11	34.53
7	12.60	1983. 2	29.53
1975. 10	12.80	1985. 2	28.53
1977. 1	13.55	1986. 1	25.13
1979. 1	13.90	2	21.00
4	15.65	3	14.45
5	16.15	4	10.66
6	18.25	5	10.38
7	21.12	6	12.11
11	23.50	7	10.25
12	25.50	8	9.83
1980. 1	27.50	9	12.20
2	29.50		

〈資料〉 인도네시아 中央銀行

〈表 - 4〉 인도네시아의 1987 - 88 회계연도 豫算案

(단위 : 10億루피아)

歲 入	1986 / 87 (추정)	1987 / 88 (계획)	증감률	歲 出	1986 / 87 (추정)	1987 / 88 (계획)	증감률
國 內 稅				經 常 費	13,125.6	15,026.5	14.5
石 油 · 가스稅	9,738.2	6,938.6	-28.7	公 務 員 給 與	4,212.6	4,316.9	2.5
所 得 稅	2,880.5	3,315.9	15.1	物 品 購 買	1,366.5	1,175.1	-14.0
附 加 價 值 稅				國 內	1,296.7	1,086.2	-16.2
/ 販 賣 稅	2,143.3	3,546.0	65.4	國 外	69.8	88.9	27.4
物 品 稅	1,054.8	1,075.9	2.0	地 方 財 政 補 助	2,639.7	2,649.1	0.4
其 他 稅	777.8	922.1	18.6	債 務 元 利 金 償 還	4,223.2	6,805.4	61.1
不 動 產 稅	284.0	274.0	- 3.5	補 助 金 (燃 料 油 등)	559.8	0	- 100.0
稅 外 收 入	953.9	1,163.6	22.0	기 타	123.8	80.0	-35.4
開 發 부 문	3,589.1	5,547.0	54.6	開 發 支 출	8,296.0	7,756.6	- 6.5
프 로 그 램 원 조	81.4	121.3	49.0	루 피 아 貨 지 출	4,788.3	2,330.9	-51.3
프 로 쥘 트 원 조 (해 외 借 入)	3,507.7	5,425.7	54.7	프 로 쥘 트 지 원	3,507.7	5,425.7	54.7
計	21,421.6	22,783.1	6.4	計	21,421.6	22,783.1	6.3

〈資料〉 Business International Asia / Pacific Ltd., Business Asia, 1987.

경상지출과 개발지출이 現會計年度 수준으로 동결되지 않을 수 없어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第 4 次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인도네시아의 제 4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 (Repelita IV) 상의 정부부문 개발투자계획과 그간의 투자실적을 보면, 계획기간 최초 2년간(1984/85 ~ 1985/86)에는 루피아화 기준으로 대략 목표의 89%가 달성되었으나, 石油가격 하락으로 1986/1987 회계연도부터는 상당한 차질을 보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 즉, 1986/1987년도에는 하반기중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증대에 노력하더라도 연간 개

발투자액은 루피아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약 6 조루피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1987/1988년도 및 1988/89년도에도 石油가격을 각각 배럴당 15달러 및 20달러로 가정할 때, 투자규모는 각각 7 조 및 10 조루피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제 4 차 개발계획기간중의 정부부문 개발투자는 당초 계획 77.74조루피아(777억달러)의 56%인 43.82조루피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획기간중의 루피아화 평가절하,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을 감안한다면 제 4 차 개발계획의 투자계획은 石油가격이 배럴당 25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부터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 5〉 제 4 차 개발계획상의 政府部門 개발투자실적 및 전망

(단위 : 兆루피아)

	1984 / 85	1985 / 86	1986 / 87	1987 / 88	1988 / 89	計
計 劃	10.46	12.85	15.47	18.12	20.52	77.74
실 적 또 는 예 상	9.95	10.87	6.00	7.00	10.00	43.82
計 劃 對 比 (%)	95.1	84.6	38.2	38.5	48.7	56.4

註 : 배럴당 油價 1987 / 88년도 15달러, 1988 / 89년도 20달러로 假定.

〈資料〉 〈表-3〉과 같음.

### Ⅲ. 油價하락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 1. 국제수지의 동향

인도네시아의 石油부문(石油 및 天然가스) 수출액은 1981년에는 180억달러를 상회한 바 있으나, 그 후 1985년까지는 대체로 120억~15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총 수출에서 66~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5/1986회계연도의 경우 石油부문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1.4%가 감소한 12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986/1987년도에는 石油가격 하락으로 전년도보다 40%나 감소한 74억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天然가스 수출은 1983/84년도 23억달러에서 1984/1985년도에는 34억달러로 늘어났는데, 1985/1986년도에는 石油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구조를 보면 무역수지는 흑자기조이나 무역외수지는 石油산업에 관련한 用役代金 지급, 과실송금 등이 많아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적자규모는 石油

수출액의 증감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데, 최근에는 非石油부문 수출의 변동과 국내경기변동 및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상품수입액의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5/1986년도의 경상수지는 石油수출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내경기 침체로 상품수입이 줄어들어 적자폭은 1984/1985년과 비슷한 18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986/1987년도에는 1986년 9월 12일平價切下로 非石油부문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상품수입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石油수출액이 크게 줄어들어 경상수지적자폭은 4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石油수출가격 배럴당 1달러 하락은 연간 약 5억달러의 수출액감소효과가 있어, 1986/1987년도의 평균 石油수출가격이 전년비 배럴당 10달러 하락한 수준일 경우 石油수출액은 50억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1986/1987회계연도에는 만약 평가절하가 없었을 경우 非石油부문 수출이 부진하고 상품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적자가 60억달러에 달하여 정부는 38억달러의 차관을 추가로 도입하고 赤字補填을 위한 15억달러의 단기자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런데 1987/1988회계연도에도 油價가 배럴당 15달러선에서 약세를 보인다면 인도네시아는 약 50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表-6〉 인도네시아의 國際收支

(단위 : 億 달러)

	1984 / 85	1985 / 86	1986 / 87 (전망)
經常収支	- 1.9	- 1.8	- 4.7
輸出	19.9	18.6	14.2
石油 부문	(14.0)	(12.4)	( 7.4)
非石油 부문	( 5.9)	( 6.2)	( 6.8)
輸入	14.4	12.6	11.9
石油 부문	( 2.8)	( 2.5)	( 2.4)
非石油 부문	(11.6)	(10.1)	( 9.5)
貿易外収支	- 7.4	- 7.9	- 7.2
石油 부문	(-3.4)	(-3.8)	(-2.7)
非石油 부문	(-4.0)	(-4.1)	(-4.5)
資本収支 (公共 부문)	3.5	3.4	6.4
外債元利金償還 (公共 부문)	- 1.3	- 1.6	- 2.1
其他資本去來	0.5	0.6	0.2

〈資料〉〈表-3〉과 같음:

#### 2. 對外債務

인도네시아의 對外公의 채무는 1984년말 현재 약 228억 달러였으나, 1985년말에는 円貨 및 유럽通貨 등의 對美 달러 강세와 개발투자를 위한 차관도입의 지속으로 약 38억달러가 증가한 267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대외채무는 60% 정도가 非달러 차관이어서 美달러貨의 가격하락에 따른 채무증가가 1985년에 20억 달러이상, 그리고 1986년에 들어와서 35억~38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우기 對日借款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円貨상승은 외채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1985년 인도네시아의 對外公의 채무 원리금상환액은 40.4억달러에 이르러 DSR이 21.8%에 달한 바 있다.

또한 1986년에 들어서서 同國의 對外公의 채무잔액은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와 円貨상승 등으로 11월 말에

〈表 - 7〉 인도네시아의 對外公의 재무

(단위 : 億달러)

	1982	1983	1984	1985	1986(전망)	1987(전망)
債務殘額(집행)	185	217	229	267	300	330
債務 上 환 액	22.5	25.5	32.5	40.4	44.3	50.0
(원 금)	11.0	13.0	16.3	23.7	—	—
(利 子)	11.5	12.5	16.2	16.7	—	—
연 간 輸 出 額	197	187	207	185	160	160
D S R (%)	11.4	13.6	15.4	21.8	27.6	31.3

〈資料〉 인도네시아 中央銀行의 IBRD 提出資料.

약 293억달러로 늘어났고, 연말에는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986년중 同外債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4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민간부문을 포함할 경우 이는 5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對外公의 재무의 DSR은 石油수출 가격 하락에 따른 외환수입감소로 1986년에 약 28.6%에 이르고, 1987년에는 油價가 1986년과 같이 배럴당 15달러선 이하에서 머물 경우,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중앙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정부의 대외직접재무의 상환상황을 보면 최근 외채가 同國예산에 매우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가 개발계획추진을 위하여 도입한 공공차관의 원리금상환액은 1984/1985회계연도에 2.74조 루피아(약 27.8억달러)에서 1985/1986년에는 3.30조 루피아(약 32억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세입(對外借入수

입 제외)의 17.2%, 재정부문 경상지출의 27.6%의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1985년 3월말 현재 정부의 대외 직접재무는 211.8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86/1987회계연도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외채상환부담액은 달러 기준으로 5.7%가 증가한 37.2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石油수출감소로 크게 줄어들어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정부세입의 33.6%에 이르고, 경상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함으로써 正常決濟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채상환은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임을 수차에 공언한 바 있으나, 정부 경상지출의 40%를 외채상환에 할애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外債元利금상환액이 40억달러에 이르는 1987/88회계연도에는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정부세입의 36%, 경상지출의 4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借款의 리스케줄링 내지는 외채상환을 위한 상업차관도입

〈表 - 8〉 인도네시아정부의 對外直接債務 上환상황

(단위 : 兆루피아)

	1983 / 84	1984 / 85	1985 / 86	1986 / 87		1987 / 88 <sup>1)</sup>
				상반기실적	연간(전망)	
外債元利金 상 환 액 (A)	2.07	2.74	3.30	1.79	5.37	6.50
(억 달러)	(21.9)	(27.8)	(32.0)	(15.9)	(37.2)	(39.5)
財政경상지출(B)	8.41	9.43	11.95	4.51	13.00	15.00
A / B (%)	24.6	29.0	27.6	39.6	41.2	43.3
財 政 수 입(C) <sup>2)</sup>	14.43	15.91	19.25	7.47	16.00	18.00
A / C (%)	14.4	17.2	17.2	23.9	33.6	36.1

註 : 1) 油價 배럴당 15달러 假定.

2) 政府 國內歲入(對外借入 제외)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외채문제가 보다 심각해지는 경우 인도네시아정부는 대외신용도유지를 위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차관공여국들에게 리스케줄링보다는 리파이닝싱 形式으로 외채문제해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약 100억달러에 달하는 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채무의 80% 이상이 讓許性借款 내지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입으로 비교적 양호한 외채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입으로 외채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1차적으로는 보유외화자산으로 상환에 응할 수 있고, 다음으로 二國間차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리스케줄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출신용 또는 상업차관 등에 대한 리스케줄링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IV. 油價하락에 대응한 경제정책 동향

##### 1. 經濟調整 政策

세계油價가 하락세를 보인 이래 인도네시아의 대응정책은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취해졌으나 기본목표는 石油 의존도 축소, 적정 외환확보 및 재정수입 안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의존도 축소를 위하여 정부는 국제油價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1983년 이래 수출입통관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수출금융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1986년에 들어서서는 5.6綜合對策(May 6 Package)을 발표하여 수출상품의 原資材 수입관세 還給制를 확대하며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관세면제제도를 도입하고 보세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1986년 10월 25일에는 非關稅障壁을 대폭 완화하여 관세제도 위주로 무역정책을 전환함으로써 국내수출산업의 생산비 저하를 유도하고 외국인투자 수출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非石油部門 수출증대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서 인도네시아의 第4次 개발계획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가 취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금융제도 개편 등 여타 주요조치도 내면적으로는 수출산업 지원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石油輸出 감소에 대응한 외환확보 및 재정수입 안정화 조치는 주로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세계개혁 및 루피아貨 평가절하 등으로 시도되었다. 정부는 1984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Tax Holidays)를 폐지하였으나, 1984년 10월에는 외국인투자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1986년 5월 6일에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허용산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지분의 現地인에 대한 양도의무를 다소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10월에는 수출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지분 허용한도를 늘리고 他輸出産業의 인수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로 여전히 활기를 띠지 않고 있어 同分野에 대한 정부의 개선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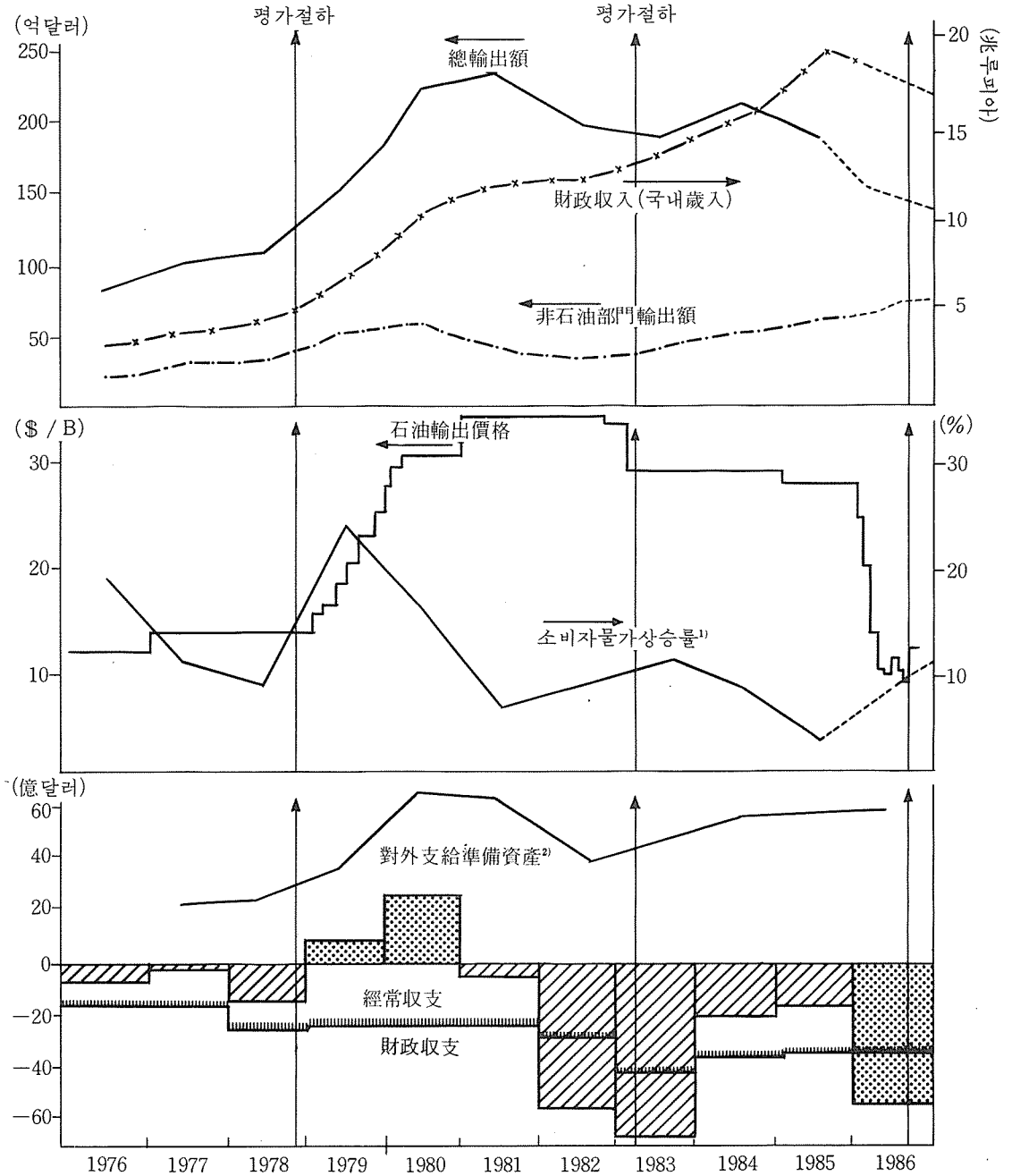
한편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하여 1985년에는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 재산세 징수체제를 강화하였으며, 1986년에 들어서는 印紙稅率을 대폭 인상하고 아울러 內國稅源 다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루피아貨의 평가절하

그러나 油價하락에 대응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정책은 루피아貨의 평가절하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1970년 이래 1978년에 이르기까지 固定換率制를 고수하여 오다가 1978년 11월에 변동고정환율제로 전환하면서 루피아貨를 33.6%(對美달러) 평가절하하였으며, 1983년 3월에는 다시 27.6%를 절하하고, 1986년 9월에 31%를 절하하는 등 1970년대 후반이래 세차례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왔다.

1978년의 평가절하는 그 이전의 固定換率로 인하여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루피아貨가 실제화되는 계기이었기는 하나, 이후 곧 국제油價가 급등하여 인도네시아의 石油수출이 급증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평가되기는 어려웠었다. 그러나 1983년의 평가절하는 油價가 하락구면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감소하던 시점에서 단행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비교적 뚜렷이 반영되었다. 1983년 평가절하 이후에는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경상수지적자가 축소되고 정부의 세입이 늘어나서 재정적자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1986년 9월의 평가절하도 아직 평가하기에

〈그림-1〉 인도네시아의平價切下관련 주요경제지표<sup>1)</sup> 추세



註：1) 當該年度末 기준, 前年末對比.

2) 當該年度末 기준.



는 어르나, 정부세입을 안정화시키고 경상수지 적자규모의 확대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다.

1970년대 후반이래 세차례 평가절하 전후의 주요경제지표의 동향을 <그림-1>에서 보면 평가절하조치의 공통점으로 평가절하시점은 ① 수출증가가 정채되고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며, ② 정부세입증가가 정채현상 내지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때에 단행되었으며, 한편 평가절하효과는 ① 非石油部門의 수출증대 및 경상수지 적자축소, ② 정부세입증가와 재정적자 확대억제, ③ 국내물가상승이 평가절하폭내에서 견제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 V. 맺는 말

재정수입과 외환수입의 60% 이상을 石油部門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경제에 있어서 세계石油가격의 하락은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 石油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도네시아의 1986년 수출액은 1985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하고 경상수지적자는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1986/1987회계연도 財政收入은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전 회계연도보다 15% 감소하고 정부의 개발투자는 4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石油가격이 1987년에도 배럴당 15달러 이하에 머문다면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적자는 축소되지 않을 것이며, 재정규모도 1986회계연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경제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對外公의 채무액은 1986년 말에 약 300억달러에 이르고, DSR이 27.6%에 달하며 세계石油가격이 1987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1987년 말의 채무잔액은 최소한 330억달러에 달하고 DSR은 3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외직접채무상환부담도 1987/1988회계연도에는 정부세입이 30%로 늘어나서 債務供與國들에게 채무구조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987년 단기정책으로서 국내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개발투자를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借入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환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내지 또다른 平價切下措置 등을 채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油價하락으로 인한 경제여건변화에 대하여 지금까지 非石油部門 수출증대정책, 외국인투자증진

을 위한 제도개선, 평가절하 등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이들 정책의 효과가 油價하락으로 인한 외환결손을 그대로 보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同國의 경제정책은 1987년에도 油價가 배럴당 15달러선에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입안되고 있는데, 이는 油價를 최소한 배럴당 18달러선으로 끌어올리려는 OPEC의 노력이 회원국들에게 먼저 감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지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어떻든 인도네시아의 대응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 분명하며, 정책내용도 지금까지의 정책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政府의 제반정책들은 최근의 심각한 국제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둘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최근 2년간의 外國人投資制度의 개선내용을 보면, 투자분야가 1986년에 이르러 크게 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節次簡素化 또는 수출산업인 경우 조건부 투자비율 허용 및 내국법인과의 동등한 혜택부여 등 일정 범위내에서 규제완화였을 뿐 별도의 지원조치는 없었으며, 내국인투자기업과의 차등은 상존하고 있다. 한편 非石油部門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내건 1986년 9월 12일 평가절하 이후에도 단기적인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일부 製材木 및 원피의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이와 같은 정책일면은 인도네시아의 對外部門政策이 '經濟自國化'라는 기본목표를 구심점으로 어떤 한계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 (주간輸銀뉴스 473호)

